

전남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입증... 매출 목표 80.7% ↑

작년 189억7000만원...고용 144명 '초과 달성' 교육부서 사업화 전주기 지원 인력부족 완화

전남 게임산업의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지역 게임 생태계 성장에 가속화되고 있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전남 지역 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이 매출, 고용, 글로벌 진출 등 전방에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며 지역 게임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의 기록을 보면 2025년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지역 게임기업의 총 매출은 18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흥원이 당초 목표로 설정한 105

억원 대비 80.7%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 고용 창출 역시 144명으로 목표치 1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지원기업 수도 증가했다. 지원기업 수(중복 제외)는 34개 사로 전년 대비 13.3% 늘었고, 매출은 22.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전남 게임산업이 실질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올해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퍼블리셔·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쿄게임쇼와 태국 게임쇼 참가, 글로벌 IR 데모데이 등을 통해 지역 게임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5건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실제 ㈜뉴슬롯의 '스핀 히어로'는 태국 퍼블리셔와 동남아 진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슈퍼퍼릭스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콘텐츠로 미국 기업과 대형 스튜디오 계약을 체결하며 전남 게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콘텐츠 제작지원도 성과를 뒷받쳤다. 스타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게임 고도화 제작지원, IP 활용 제작지원, 베타버전 제작지원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20여종 이상의 게임 콘텐츠가 개발됐고, 다수의 지식재산권이 확보됐다. 특히 다년도 제작 지원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기획부터 개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재 양성도 창업 성과도 두드러졌다. 유니타와 생성형 AI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 게임기업 취업과 신규 창업으로 이어졌다.

'교육-프로젝트-창업-사업화'로 연결되는 전주기 지원 구조가 지역 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인연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올해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 게임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농어촌공사, 2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과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관리체계 전반을 심사해 우수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관리체계, 데이터값,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서 13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진다.

농어촌공사는 데이터 품질 개선을 비롯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이력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농어촌공사는 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인 '데이터정책부'를 신설하고 관리 지침을 제정,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품질을 높였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를 실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를 발굴·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간 협업 성과도 돋보였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공간포털'에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정보와 농촌진흥청의 토양 정보를 통합 제공, 다양한 농지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였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은 데이터 품질과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고 말했다.

나주=조희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새해 첫날 후식은 겨울 참외로 롯데마트가 지난 1일부터 후식으로 즐기기 좋은 '겨울 참외'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참외는 경북 성주 시 월항농협에서 수확해 출하한 겨울 참외로, 대형마트 3사 중 롯데마트가 가장 먼저 준비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광주 2.68%·전남 5.75% ↓

전남 최대폭...전국 0.63% 하락 속 서울만 상승

올해 광주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68% 내린다. 전남은 -5.75%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1일 국토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63% 하락한다. 2024년 (-4.77%)과 2025년(-0.30%)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이다.

고급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다. 광주 오피스텔 중 최고가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AM-STAY 센트럴파크로 1㎡당 328만7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0.51% 상승한 상업용 건물도 0.68% 하락한다.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인천(-1.93%), 광주(-1.18%) 등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주요 도시 기준시가가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내린다.

유일하게 서울은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모두 기준시가가 오른다.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상승한다.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한다고 국토청은 풀이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오피스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는 현원이 1㎡당 기준시가가 1596만7000원으로 가장 높고 상업용 건물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811만9000원으로 2년 연속 1위

를 차지했다.

기준시가는 1월 1일 이후 상승·증여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제정 흥택스와 모바일 흥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2일부터 2월 2일까지 재산신청 절차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 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정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흥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물가 오름세 둔화에도 '체감물가 부담' 여전 작년 광주 1.9%·전남 2.2% ↑...식료품·서비스 상승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9(2020년=100)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2024년 연간 상승률 2.5%보다 0.6%p 낮은 수치다. 다만 2020년 이후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 부담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광주의 생활물가지수는 119.48로 전년보다 2.0% 올랐다. 지출 목적별로는 기타 상품·서비스가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음식·숙박(3.3%), 가정용품·가사서비스(2.7%), 식료품·비주류 음료(2.4%), 의류·신발(2.0%), 교육(1.7%), 주택·수도·전기·연료(1.4%), 보건(1.3%), 교통(1.0%) 등이 상승했다. 반면 통신 부분은 0.9% 하락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에 굴과 쌀, 달걀 등의 가격 상승으로 2.0% 올랐고, 공업제품도 경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7%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개인 서비스(3.0%)와 집세(0.5%) 상승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2.1% 올랐다.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4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20.03으로 전년 대비 2.4% 오르며 체감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출 목적별 상승률을 보면 기타 상품·서비스가 5.4%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비주류 음료(3.1%), 음식·숙박



(2.9%), 가정용품·가사서비스(2.8%), 교통(2.1%), 교육(2.1%), 의류·신발(1.9%), 오락·문화(1.4%), 주택·수도·전기·연료(1.2%) 등이 뒤를 이었다. 통신 부문은 1.0%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에 돼지고기와 굴, 고등어, 갈치 등의 가격 상승으로 2.5% 올랐고, 공업제품도 1.9%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개인 서비스(3.3%), 공공서비스(0.9%), 집세(0.6%) 상승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2.4% 올랐다.

한편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61(2020=100)로 전년보다 2.1%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를 기록한 이후 2023년 3.6%, 2024년 2.3% 등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2%대 초반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

광주노동청, 산업안전 재해 '짬짜마'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상 연말연시 불시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광산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은 작업 강도가 높아지는 연말·연초를 앞두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의식을 환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배전반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콘센트 접지 미실시, 밀폐공간 출입 금지 표지 미거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및 하단 체인 덩개 미설치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위험성평가를 통한 화재·폭발 위험요인 자체 발굴, 시충성형기 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LOTO(Lock Out, Tag Out) 수칙 준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지도도 병행했다. 한파에 대비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와 면담을 통해 작업공정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적인 자체 점검과 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배전반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콘센트 접지 미실시, 밀폐공간 출입 금지 표지 미거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및 하단 체인 덩개 미설치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와 면담을 통해 작업공정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적인 자체 점검과 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연말과 같이 작업 여건이 바뀌는 시기일수록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대 재해 다발 사고유형을 중심으로 한 상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n0918@

고흥, 해수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

AI·데이터 기반 기술 접목...2030년까지 1900억 투입

전남 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수산업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전남 수산업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과 산업 고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통 수산업에 AI·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수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이다. 새 정부 초혁신 15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산업의 구조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도와 고흥군은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19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고효율·친환경 스마트 양

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AI 기반 양식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산·관리·유통 전 과정에 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쿠아팜 기업 육성과 미래형 수산업 모델 구현에 나선다.

공모 과정에서도 고흥군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공모 신청에 앞서 육·해상 33만㎡(10만평) 이상 규모의 사업 부지 확보 여부, 해상 양식장 조성 등 관련 사업인 등의 확보 상황 등을 중심

으로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육상 스마트양식 시설 조성 부지의 집적 가능성, 해상 양식장 조성에 따른 어업인 협의 수준, 장기간 운영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완성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전남도는 이번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스마트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축적된 기술과 운영 성과를 도내 전반으로 확산해 수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양식 기술 고도화와 함께 전문 인재 양성, 관련 기자재·서비스 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

이현구 기자 gnnews@